

한마리의 암소가 112두의 등록우를 생산

Diamond-S Eve Corry 라는 이 암소는 5 세 때에 17,540 kg(유지방 3.4%)의 우유를 생산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유량 1등을 기록한 홀스타인종으로 6대째 계속하여 외모점수 90 점 이상을 받아왔다. 체형이 좋고 산유량도 우수한 혈통이 좋은 이 암소는 수정란이식을 위해 수정란을 공급하는 소로 이용되어온지 6년만에 등록우 112두를 생산하고 1986년 2월 15일그의 생애를 마쳤다.

등록된 후손의 내용을 보면 수소가 49두, 암소가 63두로 되어있고 49두의 수소중 37두는 인공수정을 위한 종모우로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암소들은 장차 종모우를 생산할 암소로 비싼값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그동안 이 암소의 난자에 수정된 종모우는 13두에 달하며 그중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발리안트, 부트메이커, 트레이슨등 유명한 종모우가 동원되어 왔다.

이 Corry의 자손들은 각종 경매에서 대개 2만불내지 3만불에 팔려나갔고 가장 높은 값은 16만 5천불에 팔려나간 착유중의 딸이었다. 수

송아지중에는 그렌델과의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1982년에 북해도 가축개량사업단에 7만 2천불에 팔려나간 것이 있다.

한마리의 암소가 100마리가 넘는 등록우를 생산한 것은 실로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물론 과배란방법과 수정란이식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것은 이러한 우수한 암소를 골라낼 수 있게한 등록과 심사와 산유능력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암소의 어머니는 93점, 할머니는 90점, 그위는 91점, 91점, 90점등 6대가 90점(Excellent) 이상이라는기록뿐만 아니라, 혈통, 산유능력의 기록이 있었기에 이 암소를 수정란이식에 공란우로 사용토록 하는 결정이 가능했고 또 생산된 수소나 암소가 비싼값으로 팔려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남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실에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